

경제

올 추석 과일·생선값 급등할듯

사과·배 출하량 부족 작년보다 5~15%가량 인상 전망

수산물도 20% 상승... 한우 등은 예년수준 보험세 유지

올 추석에는 과일과 생선값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따르면 사과, 배 등 청과물은 출하량 부족으로 작년보다 5~15%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이 열릴 정도 빨라진 반면 수확시기는 지연된 탓에 출하물량이 줄면서 산지시세가 10~20%가량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수량도 부족했던데다 올 봄 남해 피해로 과육이 크지 않고 당도도 떨어지는 상품들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통업체들간 고품질 상품 확보를 위한 경쟁까지 치열해져 소매가격 또한 10~20% 상승할 전망이다.

수산물도 우리나라 근해의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조업상황이 좋지 않아 산지가격이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추석선물세트 가격도 5~10%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어 세트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굴비는 참조기 어획량이 작년에 비해 20% 이상 줄면서 가격이 10~15% 가량 상승하고, 멸치는 산지 물량이

30% 이상 줄었지만 비축 물량으로 작입하기 때문에 가격은 10% 상승하듯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우를 비롯해 가공식품 등 생활용품 세트는 예년 수준으로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추석에는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가 확대되면서 한우 수요가 크게 늘어나 도매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반면 올해는 한우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인 284만두에 달해 수요 이상의 물량이 공급돼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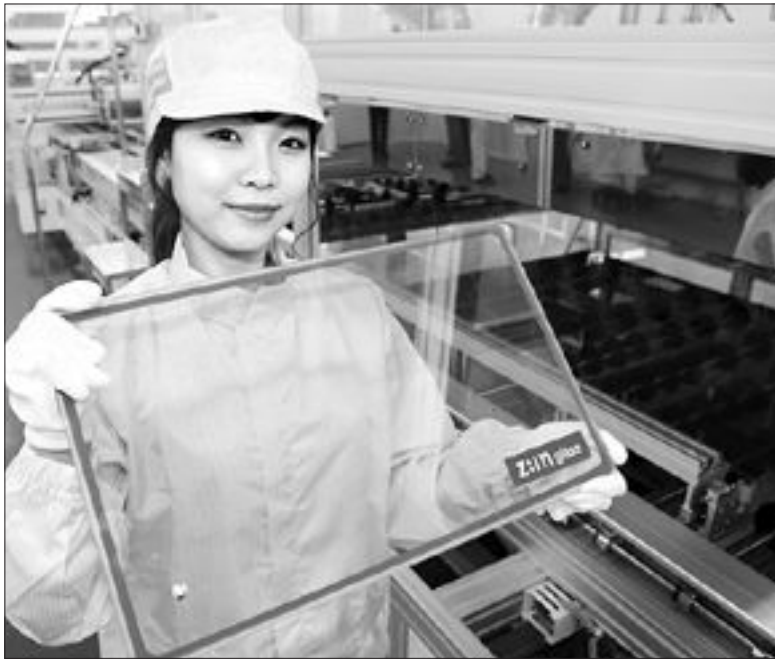
가공식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선물 세트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이 적어 지난해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는 가격이 오른 수산물과 청과 물량을 대량으로 준비해 예년 가격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경기 회복세로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최고급인 '5스타 한우'와 '냉장 후레쉬육 세트'를 작년보다 40%가량 늘린 4만2000세트를 준비해 수요증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삼, 수삼 등 건강식품 물량도 작년보다 40%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내 첫 진공유리 출시

15일 LG하우시스 청주공장 창호기술센터에서 한 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출시된 진공유리를 선보이고 있다. 열손실을 최소화한 이 제품은 유리판 2장 사이에 0.2mm 정도의 진공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 아르곤이나 크립톤 등 고단열 가스를 주입했다.

연합뉴스

빵·아이스크림 값도 들쭉

설탕값 8.3% 오르자 업체마다 인상시기 조율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빵과 아이스크림 값이 들쭉이고 있다.

이달 초 국내 설탕값이 8.3% 오르자 제빵·빙과류 업체들이 기다렸다. 설탕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립식품, 기린 등 양산빵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들과 가격인상 협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롯데삼강, 해태제과 등 빙과류 업체들도 아이스크림 값 인상을 위해 대형마트에 가격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제빵·빙과류 업체간 가격협상이 시작되면 통상 한달 후에 가격이 오른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빵과 아이스크림 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제빵 업체와 빙과류 업체들은 가격협상 능력이 없는 영세한 동네 슈퍼마켓에는 이미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사먹는 양산빵의 가격 인상은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빵업체들이 주장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 주장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햇배 맛보세요"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농협유통(대표이사 조성봉)이 15일 매장에서 첫 출하된 햇배를 선보이고 있다. 햇배는 '원황' 품종으로 껍질은 선명한 황갈색으로 모양이 좋은 특징이며 개당 3000원에 판매된다.

연합뉴스

항바이러스제 '페라미비르'

녹십자 국내시판 허가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 당시 기존 약물이 듣지 않거나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던 항바이러스제 '페라미비르'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녹십자는 15일 일본의 시오노기사로 부터 원료물질을 수입해 만든 새 항바이러스제 '페라미비르주(성분명 페라미비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 시판을 위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원래 미국의 바이오크리스탈(BioCryst)사가 개발해 일본의 시오노기사에서 임상 1, 2상을 진행했으며, 녹십자가 국내 판권을 사들여 최종 임상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독립유공자 지원사업

포스코 미소금융 강화

포스코는 15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생활 향년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 미소금융은 독립유공자 등 보호대상자 및 가족, 일제강점기 피해자 및 가족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창업과 사업운영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적정 심사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며 연리 4.5%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할 예정이다.

또 포스워드, 포스코에코하우징, 포스플레이트, 송도SE 등 포스코가 운영중인 사회적기업 4곳에서 2012년까지 240여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 들 보훈 가족 등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성 경제활동 10년 후퇴

출산·육아로 직장 포기... 남성과 임금격차 이유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10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출발해 200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2006년 50.3%를 정점으로 2007년 50.2%, 2008년 50%, 2009년 49.2%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급감할 경제활동인구를 보완해 줄 잠재적 대안 중 하나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10년전 수준으로 후퇴한 셈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도 2000년 900만명에서 2003년에 한차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14만명을 기점으로 2009년에는 1008만명으로 감소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세

인 것은 여성들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했으나 결혼이나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직장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30대를 정점으로 거꾸로 된 U자형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와 40대보다 낮아지는 M자형을 보이는 점에 드러난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도 1990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여성 취업자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53.4%에 불과했으나 1995년 59.8%, 2000년 62.9%, 2006년 6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75~90%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큰 편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40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9	15	19	22	3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662,206,188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287,906	41
3	5개 숫자 일치				1,396,385	1,271
4	4개 숫자 일치				50,000	62,656
5	3개 숫자 일치				5,000	1,034,048

- ▼ 코스피지수 **1,746.24** (-37.59)
- ▼ 코스닥지수 **477.17** (-1.30)
- ▼ 금리 (국고채 3년) **3.73%** (-0.16)
- ▲ 원·달러 환율 **1,183.80원** (+22.00)

※수치는 13일 기준 1주전과 비교

"스마트폰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우수 개발 인력 확보가 중요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있을 IT업계 공채에 앞서 지방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전국 투어에 나섰습니다."

IT업계가 스마트폰 단말기 경쟁에 이어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지방의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지방 국립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인재를 뽑을 계획이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1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의 우수 인재 선점을 위해 전남대를 비롯해 주요 지방 국립대를 찾아가는 전국 투어를 벌인다.

10월이나 11월께 있는 IT업계의

LG전자, 지방 인재뽑기 전국투어

24일 전남대 방문 등 현장면접 실시

실전형 연구개발 인재 100여명 선발

공채에 앞서 지방 우수 인재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다.

LG전자는 2011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과장 추천을 받은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실시한다.

면접관으로는 LG전자 MC(Mobile Communications)연구소 임원급 연구원들이 직접 나선다.

선발 분야는 소프트웨어(SW)는 물론, 하드웨어(HW) 등 휴대전화 전 분야의 실전형 연구개발(R&D)인재 100여명이다.

대상 대학은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다.

전남대는 오는 24일 도서관 별관에서 현장면접을 한다. 면접은 직무

면접, 인성면접, 여학생가 등을 실시한다.

결과는 8월 말 통보되며, 신체검사를 거쳐 9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방 인재의 입도선매는 최근 스마트폰 경쟁으로 휴대전화 관련 개발인력 수요가 늘면서 R&D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인력을 확보에 나섰다"면서 "지방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전국 투어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채용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딱딱 광고

경매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광고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